

코로나 재습격에 벼랑끝 내몰린 지역경제

기아차·삼성전자·금호타이어 공장 확진자 발생 잇단 조업 중단
생산·수출 치명타...심상찮은 확산세에 공장 '셧다운' 가능성도
자영업자들 존폐 기로...광주 도심상권 공실률 3분기 연속 증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지역 중추 산업계는 확진자 발생에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조업에 차질을 빚으며 생산·수출에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외식업계를 비롯해 광주 지역 주요 상권도 활기를 잃었다.

특히 확진자가 단 한명이라도 나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산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당장 조업을 재개해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추가 확산이 발생으로 인한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조부터 시작된 '코로나 불황'에 경영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도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는 등 지역 경제 전반이 위정거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일 지역 경제계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밤사이 생산직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1공장의 주간조 조업을 중단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근로자 4명이 확진되면서 1·2공장과 버스공장의 주간조 조업이 중단됐다. 오후 가동을 재개한 바 있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해 '셧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은 확진판정을 받은 협력사 직원과 접촉한 생산직 근로자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가동을 중단했고, 같은 날 확진자가 나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선제적으로 2일까지 냉장고 라인 가동을 멈춘 상태. 위니아전자 역시 이날까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지역의 중추 산업들이 잇달아 조업을 중단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공장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지역감염 사례가 폭증함에 따라 언제 또 다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검사 결과 확인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결과에 따라 공장 가동이 재개될지, 한동안 중단이 이어질 지도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결국 우려해왔던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도 만만치 않아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불황에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을 겪어왔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존폐기로에 서 있다. >2면으로 계속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온 누리에 안식을"...불 밝힌 성탄트리 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2020 빛고를 성탄문화축제'가 개막했다. 분수대 옆에 조성된 대형 성탄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석열 총장 7일만에 업무 복귀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본안소송후 30일까지 임시 정지
법무부 징계위원회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관련기사 4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

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 달 24일 이후 7일만이다.

윤 총장은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는 "바야 할 것 같다"라고 답

했다.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다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이를 연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1일 저녁 알리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 4자 협의체 구성 광주 군공항 이전 새국면 맞았다

수도 상생위원회 10개 과제 합의

답보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 4자 실무 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된다. 국책사업임에도 수수방관했던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전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에 탄력이 붙는 등 사업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공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4자 실무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금일 합의문 발표 이전부터 국방부, 국토부, 광주시, 전남도 4자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조만간 협의체 명칭과 협의체가 수행할 군공항 이전 관련 용역 등을 확정,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시도는 이날 군공항 이전 문제 외에도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25건의 기존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및 정부정책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문화·환경·의료 등 분야의 신규 협력과제 8건을 발굴해 논의했다.

신규과제는 ▲지역균형 뉴딜 등 초광역 협력사업 공동 발굴 ▲광주·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마한문화권 개발 추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공동 활용 ▲시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영산강 자유·지천 생태환경조사 ▲광주·전남 감염병 공동 대응 병상·납품 체계 구축 등이다.

출범 6년째를 맞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그동안 47개의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38건이 정부사업으로 반영되는 등 성과를 거뒀으며, 광역교통망 등 나머지 9건은 국가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 중이다. 민선7기 들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설립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제2남도고속도로 ▲한국학 호남진흥원 건립 등 교육·산업·문화·SO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모델하우스 오피스
T.372-6666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정)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상-상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주체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에 따르면 소외된 피해에 상응한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 소외자의 용이한 조해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사용합니다. ※ 계획용량 100% 미비되는 역전역 시설(미리)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